

# 문헌정보학분야의 논문평가에 관한 고찰\*

## Review on Library Science Research Evaluation in Korea

이 승 채(Seung-Chae Lee)\*\*

### 〈 목 차 〉

- |                       |             |
|-----------------------|-------------|
| I. 들어가는 말             | IV. 비실증적 연구 |
| II. 문헌정보학 논문평가에 대한 고찰 | V. 맺는 말     |
| III.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     |             |

### 초 록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문헌정보학 논문들에 대한 평가내용들을 제시하고 과학적 연구와 질적 연구, 비실증적 연구 등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현재의 논문생산시스템을 제도적으로 보완하기 위해서는 개관적 연구분야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향후 이 분야의 활성화를 위하여 학회차원이나 학술진흥재단 차원에서 노력할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Annual Review of Information Science and Technology 와 유사한 학술지를 연간으로 발행할 수도 있고 기존학회지에 개관논문들을 게재하도록 장려할 수 있을 것이다. 각 분야의 권위자들이 한국의 도서관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연구내용을 정리하고 향후의 연구방향을 제시하면 그 파급효과는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된다.

주제어: 문헌정보학연구방법론, 양적 연구방법론, 질적 연구방법론, 비실증적 연구, 실증적 연구, 문헌정보학 논문평가, 개관연구, 개관적 연구, 개관논문

### ABSTRACT

This study reviews the research papers which deal with research evaluation in library science and discusses on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research methods, and non-empirical research.

For the purpose of improving paper production system, encouragement of publishing review paper and review journal is recommended.

Key Words: Research Method, Qualitative Research, Empirical Research, Non-Empirical Research, Research Evaluation

\* 이 논문은 2004년도 전북대학교 지원 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전북대학교 인문대학 문헌정보학과 조교수(create@chonbuk.ac.kr)

• 접수일: 2005년 11월 16일 • 최초심사일: 2005년 12월 3일 • 최종심사일: 2005년 12월 5일

## I. 들어가는 말

이제까지 우리나라 문헌정보학논문을 평가한 논문들이 상당수 있지만 그 중에서도 최성진, 김정근, 정동열 등의 논문들은 우리 문헌정보학계에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그 논문들을 읽다보면 그들이 얼마나 우리나라 문헌정보학계에 애정을 가지고 있는지 피부로 느껴진다. 그 논문들은 우리나라 문헌정보학 논문들이 어떤 문제점들을 안고 있고 어떤 지향점을 가져야 하는지 각각의 관점에서 분명하게 보여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후에 우리나라 논문들을 평가한 내용을 보면 논문의 수준이 높아졌다는 내용은 쉽게 볼 수 없다. 최근에 발표된 논문에서도, “조동일의 분류에 근거하면 우리나라 문헌정보학 논문들이 선진국의 이론을 도입하여 소개하는 수입학의 단계에 있고 또한 외국 이론을 가져와 감론을박하는 시비학으로써의 면모도 보인다!”고 주장하는 내용이 있다.

문헌정보학을 연구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러한 글을 접하다보면 의문을 갖게 된다. 오래전부터 근래에 이르기까지, 학계의 대표적인 원로급에서부터 신진 학자들까지 왜 우리 문헌정보학 논문들에 대하여 낮은 점수를 주고 있는 것일까? 그것이 객관적인 사실일까? 만약 그렇다면 이상적인 논문은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할까? 이제까지 여러 가지 개선책들이 제시되었는데 왜 최근에도 우리나라 논문들이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는 것일까? 보다 제도적인 개선책은 없을까? 이런 연구문제들에 대한 답을 구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이제까지 발표된 우리나라 문헌정보학분야의 논문 평가 내용을 살펴보고 관련된 논점들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 II. 문헌정보학 논문평가에 대한 고찰

우리나라 문헌정보학 논문평가의 역사를 살펴보면 문헌정보학 연구방법론이 연세대에서 처음으로 1974년도에 개설되었고, 성균관대 대학원 학위논문심사에서 과학적 연구를 위하여 가설의 사용이 오랫동안 강력하게 요구되었다. 90년대 들어서서 정동열과 이두영, 유사라 등의 교수들은 연구방법론 관련저서들을 출판하였다.<sup>2)3)4)</sup>

공개적인 연구논문을 통하여 다른 연구자들의 논문에 대한 질적 평가를 한 경우는 한국문헌정보학의 역사에서 1993년도 이전에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논문에 대한 질적 평가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던 분위기에서 1993년 여름 정동열은 대단히 통찰력 있는 논문을 학술대회에서 발표하였다. “연

1) 이용재, “한국 대학도서관경영 연구의 탈식민성 담론 전략,”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6권, 1호, pp.151-172.

2) 정동열, 문헌정보학연구방법론(서울: 구미무역출판부, 1992).

3) 이두영, 김성희, 이명희, 문헌정보학연구방법론(서울: 한국도서관협회 1997).

4) 유사라, 정보학연구와 분석방법론(서울: 나남출판, 1999).

구방법론 분석에 의한 문헌정보학 이론개발에 관한 연구”가 그것이다. 그는 도서관학, 정보관리학회지, 서지학연구 등에 게재된 338편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 연구자들이 이론개발이나 실증적 분석보다는 실무적인 문제해결이나 응용에 높은 선호도를 반영하고 있고, 문헌고찰이나 사적고찰에 그친 논문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문헌정보학 연구의 대부분이 현상을 있는 그대로 설명하는 탐색적인 연구이거나, 문헌고찰에 이어 이론을 소개하는 정도라고 하였다. 그래서 우리나라 문헌정보학 이론들은 이론 정립에 대한 효율성이 낮고 실무에서 궁금해 하는 현상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하지 못하는 초보형에 머무르고 있다고 하였다.<sup>5)</sup>

그에 바로 화답한 논문이 최성진의 “한국문헌정보학에 대하여<sup>6)</sup>”라고 할 수 있다. 이 논문에서 우리나라의 문헌정보학 학술지 기사를 분석한 결과 1) 문헌정보학의 문헌정보학의 개념에 부합되는 기본주제를 다루는 논문은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고 2) 가설을 세워 검증하는 진정한 의미의 연구는 약 40%에 지나지 않고 나머지는 특정 봉사의 개선책 마련을 위한 응용연구, 증거에 기초하지 않은 저자의 견해 제시, 다른 연구자가 만든 이론의 소개 등 적용범위와 가치가 한정된 것이고 3) 약 반만이 한국도서관봉사의 현실과 밀접하게 관련되고 한국의 도서관봉사 발전에 기여하는 연구이며 나머지 반은 한국 도서관봉사의 현실과 약하게 관련되거나 전혀 관련되지 않은 연구이고 4) 약 3분의 1만이 한국 문헌정보학의 정립에 기여하는 연구이고 나머지는 외국 문헌정보학 선행 연구의 후속연구로 주로 외국 문헌정보학 발전에 기여하거나 타 분야 학문에 기여하는 연구라고 하였다. 평이한 문장으로 쓰여진 이 논문은 많은 이들에게 강한 충격을 준다.

사공철과 최정희는 “문헌정보학, 사회복지학, 교육학 분야 등의 학술지 논문들을 비교한 결과 보다 정밀하고 유용한 연구 설계를 바탕으로 예측과 통제 및 연구의 일반화를 기할 수 있는 추리통계기법을 문헌정보학 분야에서 활발히 사용하지 않고 있지만 사용된 추리통계기법에 있어서의 질적 수준은 다른 분야와 크게 차이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sup>7)</sup>

제자들과의 공동작업을 통하여 문헌정보학의 연구방법론과 관련된 뛰어난 논저를 많이 남긴 김정근은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해서 발견되는 총체적 문제는 보편적 이론에 대한 집착, 외부의 권위에 기댄 일상성으로부터 유리된 지식 생산 등으로 집약될 수 있다.<sup>8)</sup>

5) 정동열, “연구방법론 분석에 의한 문헌정보학 이론개발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제10권, 제2호(1993), pp.23-41.  
 6) 최성진, “한국문헌정보학에 대하여,” 창사이춘회교수정년기념논문총(서울: 창사이춘회교수정년기념논문총 간행위원회, 1993), pp.81-112.  
 7) 사공철, 최정희, “문헌정보학 분야의 통계기법 사용에 관한 계량적 연구,” 도서관학논집 제20권, p.53.  
 8) 김정근, 김영기, “문헌정보학 연구에서 자아준거적 글쓰기의 모색” 우리문헌정보학의 길 어떻게 걸어갈 것인가 (대구: 태일사, 2000), p.183.

#### 4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제36권 제4호)

“지금까지 한국문헌정보학은 자생적 기반이 약한 상태에서 쇠퇴하는 외국학문에 밀려 양적으로는 어느 정도 성장하였다고 할 수 있으나 질적인 발전을 이루는 데까지 도달하지 못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엄밀히 말하면 그 동안 우리는 외국의 이론에 종속되어 주체적인 학문을 뿌리내리는데 너무도 소홀히 해왔다.”<sup>9)</sup>

여러번 학회에 머리를 내밀고 귀를 기울여 보았지만 도대체 재미가 없다. 발표하는 내용이 잘 들리지도 않고 원고화 되어도 잘 읽히지도 않는다. 누구나 다 알고 느끼는 이야기를 문제시해놓고는 복잡하고 어려운 통계적 증거과정을 거쳐 그것을 증명해보이려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기가 일쑤이다.<sup>10)</sup>

설문원과 차미경은 질적 연구가 어떻게 수행되고 있는지 조사하였다. 분석 근거는 질적 연구의 본질적인 특성을 얼마나 관찰시키고 있는나이고 특히 각각의 연구가 현장의 문제를 얼마나 잘 설명하는지, 내부자 관점에 얼마나 충실한지, 연구과정의 유연성을 얼마나 견지하였는지, 즉 현장의 역동성을 얼마나 잘 포착하고 있는지, 연구자의 주관에 처리하는데 어떤 장치를 사용했는지, 즉 연구과정 및 방법을 얼마나 상세히 설명하고 있는지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 결과 많은 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들을 토대로 앞으로의 연구에서 고려해야 할 점들로 1) 연구자 편견의 배제와 충분한 자료제시 2) 연구과정의 유연성 확보와 철저한 조사과정의 확보 3) 체계적인 연구설계 등을 제시하였다. 또한 그들은 이제 우리나라에도 각고의 노력으로 일구어 낸 훌륭한 질적 연구사례들이 축적되고 있다고 하였다.<sup>11)</sup>

이제환은 한국문헌정보학계의 전반적인 문제점과 해결책을 다룬 논문에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한바 있다.

지난 40여년 동안 우리 학계에서 생산되어온 각종 연구물을 분석해보면 학문의 방향을 제시하는 기초 연구나 지속적인 연구의 토대가 될 수 있는 이론의 생산보다는 임기응변식의 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에 너나 할 것 없이 지나치게 몰두해 왔음이 드러난다. 이처럼 한국문헌정보학은 다양한 정보환경에 적용될 수 있는 일반성 있는 이론의 개발과 축적을 통해 학문의 과학성을 쌓아가는데 소홀하였으며 그 결과 사회구성원들 사이에 학문의 시공간적 유용성에 대한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실패함으로써 오늘날 학문성 자체를 의심받는 처지로 전락해가고 있다.<sup>12)</sup>

9) 김정근, 이수상, “현 단계 한국문헌정보학의 발전전략” 우리문헌정보학의 길 어떻게 걸어갈 것인가(대구: 태일사, 2000), p.29.  
10) 김정근, 김영기, 전개서, pp.150-151.  
11) 설문원, 차미경, 문헌정보학에 있어서 질적 연구의 의의와 과제 이화여대 문헌정보학과 창립 40주년 기념논문집(서울: 이화여대 문헌정보학과, 1999), pp.65-92.  
12) 이제환, “전환기 ‘한국’ 문헌정보학의 패러다임 변화를 주장하며”(2000, 112) 우리문헌정보학의 길 어떻게 걸어갈 것인가(대구: 태일사, 2000), p.112.

김명희(2002)는 내용분석법에 의한 문헌정보학 학술지 연구논문 분석에서 이론의 정립 또는 이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연구논문은 전체의 4.18%에 불과하다고 하였다. 이는 대부분의 연구가 독자적인 이론을 개발하거나 계승 발전시키기 보다는 단순히 현상을 기술하거나 주장을 강조하는 한국 문헌정보학계의 이론의 취약점을 그대로 드러낸다고 하였다.<sup>13)</sup>

정동열 등(2003)은 이론연구가 기존 이론 자체의 타당성을 지속적으로 평가하게 하여 이론을 무효화시키거나 강화시키고, 검증될 만한 새로운 현상들을 제시함으로써 지식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전제하고 문헌정보학 논문들의 이론 활용실태를 조사하였다. 연구대상은 한국문헌정보학회지와 정보관리학회지 창간호부터 1999년도까지 게재된 논문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즉 게재된 논문들의 이론 활용정도를 단순언급, 배경연구, 이론검토, 이론응용, 분석평가 등 다섯 단계로 구분하여 논문별로 어느 정도 활용하고 있는지 조사하였다. 그 결과 한국문헌정보학회지에서 이론을 활용한 논문의 비율은 14.7%이고 이론을 활용한 논문 1편당 1.84회의 이론이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정보관리학회지는 27.9%의 논문에서 1편당 2.09회의 이론이 활용되었다. 단순언급을 1점으로 하고 배경연구 2점, 이론검토 3점, 이론 응용 4점, 분석평가 5점 등 각 단계별 가중치를 주어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 문헌정보 전체적인 이론 활용도가 2.10으로 이론 활용 5단계 기준의 2단계에 해당하는 배경연구보다 약간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 저자는 새로운 이론 개발과 정립만이 학계의 성장과 현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라고 주장하면서 논문을 끝맺고 있다.<sup>14)</sup>

동 저자들이 다음해에 발표한 “문헌정보학 이론의 효율성과 활용성 연구”에서는 이론 활용성 뿐만 아니라 효율성까지도 조사하였다. 이론의 효율성은 관계성, 방향성, 공변화, 변화율 등의 4단계로 구성하였다. 즉 관계성은 두 이론 단위간에 상호관계가 존재하는지 아닌지 그 여부만을 진술한 경우이고 방향성은 이론단위 간의 상호관계가 갖는 방향적 특성을 진술하는 경우이며, 공변화는 이론단위 A가 변화할 때 이론단위 B가 변화하는 모습을 진술하는 경우이고, 변화율은 이론 단위들 간에 존재하는 상호작용 관계의 변화량까지 설명하는 경우이다. 이론 활용성 분석에는 앞의 논문에서 제시된 5단계이론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그 결과 20년간 문헌정보학 연구의 이론 효율성은 우리나라가 1.97이고 미국은 1.94로 나타났으며 이론 활용성은 우리나라가 2.11이고 미국이 2.56으로 나타났다. 즉 이론 개발 면에서 우리나라의 문헌정보학 논문의 효율성이 미국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고 이론의 효율성과 활용수준이 모두 각 분석척도의 절반 수준에 위치하였다.<sup>15)</sup>

13) 김명희, “내용분석법에 의한 문헌정보학 학술지 연구논문분석,”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36권, 제3호(2002, 9), p.303.

14) 정동열, “문헌정보학 연구의 이론활용성 분석,” 정보관리학회지, 제20권, 제1호(2003), pp.165-198.

15) 정동열, “문헌정보학 이론의 효율성과 활용성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제21권, 제1호(2004), pp.23-53.

### Ⅲ.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

논문평가에 대한 이제까지의 논의를 검토해보면 정동열, 최성진, 김정근 등의 논문에서 모두 우리나라 상황에 맞는 연구가 행해져야 한다고 주장되었다. 그런데 이론의 정립은 최성진, 정동열의 논문에서는 아주 중시된 반면, 김정근의 논문에서는 그렇지 않다. 최성진은 진정한 의미의 연구가 가설을 세워 검증하는 것이라고 하였다.<sup>16)</sup> 정동열은 이론의 정립 없이는 모든 지식이 비체계적인 지혜의 모음에 불과할 따름이고 새로운 이론 개발과 정립만이 학계의 성장과 현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라고 주장한다.<sup>17)</sup> 이런 입장들과는 반대로 김정근은 가설검증과 같은 연역적 연구방법을 비판하면서 존재하는 현상과 사실을 종합하고 분석하는 과정을 통해서 어떤 결론에 도달하는 귀납적 방법의 이용을 중시하였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해서 발견되는 총체적 문제로 보편적 이론에 대한 집착”이라고 언급할 정도이다.<sup>18)</sup>

이러한 입장 차이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 문헌정보학계 역사적 흐름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가 받아들인 미국의 예를 살펴보자. 미국의 경우에도 문헌정보학 분야의 연구들이 전반적으로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즉 누적적이지 못하고 산만하며 전반적으로 허술하고 실질적 응용에만 너무 조급한 것으로 묘사되었다.<sup>19)</sup> 그런 상황에서 상당기간동안 과학적 연구방법이 중시되고 요구되는 것은 당연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과학적 방법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는 연구자들에 의하여 질적인 연구방법이 출현하게 되었다.

문헌정보학의 기초연구들 중의 상당수는 상대적으로 과학적 탐구 방법에 집착하려는 경향을 갖는 정량적 연구의 형태를 취하여 왔지만 좀 더 최근에 들어서는 정보학 분야를 중심으로 정성적 연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sup>20)</sup> 김정근 등은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미국의 문헌정보학계의 경우 양적 방법을 보완하고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는 시각으로 질적 방법을 활용하고 있다. 나아가 학문연구에서 인간적 요소를 외면해온 형식적 과학주의의 고정관념을 깨고 과학성을 추구하는 논문에 사람들의 삶에 대한 생생한 묘사를 곁들이거나 대폭적으로 수용하는 움직임이 미국 문헌정보학의 뚜렷한 한 줄기로서 조용하지만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어,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한다.<sup>21)</sup>

16) 최성진, 전게서, p.110.

17) 정동열, 전게서, p.40.

18) 김정근, 김영기, 전게서, p.183.

19) Ronald R. Powell, 문헌정보학의 연구방법론, 홍현진 역(서울: 구미무역출판부, 1996), p.5.

20) *Ibid.*, p.86.

21) 김정근, 전게서, p.193.

우리나라 상황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환이 각 주제별로 얼마나 많은 연구 논문이 지난 28년 동안 생산되었는지를 조사해 보았더니 하나의 주제영역에서 평균 35편이 생산되어 1년 평균 약 1.3편의 논문이 생산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sup>22)</sup> 주제 영역당 1.3편밖에 안될 정도로 논문양이 부족한 시대에서 특정 업무의 개선책, 저자의 견해, 외국이론의 소개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현실에서 오랫동안 적용될 수 있는 이론을 과학적인 연구방법을 통하여 개발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던 점은 자연스럽게 보인다. 이용남 등은 다음과 같이 지적한 바 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문헌정보현상 연구의 거의 대부분을 양적 연구로 간주하여도 무리가 없으며 많은 연구자들은 양적 연구를 전부로 인식하고 있는 듯하다. 일반적으로 양적 연구가 수량화나 계량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면 질적 연구는 수량화하기 곤란한 실제현상이나 관점 또는 인식을 강조하고 있어 자료 수집과 분석방법에도 큰 차이가 있다. 양적 연구에 편향된 한국 문헌정보학계의 현실을 극복하기 위하여 귀납식의 질적 연구를 도입하여 새로운 분석을 시도해 볼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sup>23)</sup>

이렇게 연구방법이 데이터를 수집하여 양적으로 분석해야 하는 것으로 획일화되고 그래서 다른 방법을 통하여 더욱 잘 연구될 수 있는 부분까지도 양적 연구방법이 남용되는 경우들이 생기게 되자 양적 연구방법을 보완하고 한국적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하여 질적 연구방법이 요구된 점도 또한 자연스럽게 보인다. 이수상은 양적 연구 및 질적 연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양적 연구가 좋지 못한 연구방법이라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현상적인 당면과제해결을 위해 한국의 문헌정보현상을 계량적 단위(모델)로만 환원시켜 설명하려는 양적 연구로만 너무 편중되어져서 질적 연구가 간과되어버렸다.<sup>24)</sup>

김정근은 양적 연구방법의 남용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표현한다.

가끔씩 제목만 보고 책을 사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분명히 재미있어야 할 또는 재미있어 보이는 우리의 도서관 살이를 제대로 다루지도 못한 채 방법론적인 신중성이나 측정, 통계분석만을 강조하고 있어 독자의 기대를 무너뜨리곤 한다. 연구자들 사이에 만연되어 있는 방법 중시풍조를 보면서, 그렇게 중시하는 연구방법이 획일화되어 있는 아이러니를 발견하고 힘없이 고개를 흔들기도 한다.<sup>25)</sup>

22) 이제환, 전게서, p.115.

23) 이용남 등, “문헌정보학의 학문적 성격규명에 관한 연구.” 한국정보관리학회연구보고서, 1995, p.133.

24) 이수상, “한국문헌정보학의 지식체계에 관한 연구: 문헌정보학관련 학회논문집 게재논문을 중심으로” 도서관학논집, 제20집, pp.434-435.

이어서 그는 베리트<sup>26)</sup> 등의 저서를 인용하여 과학주의적 방법론의 주장 하나하나에 대하여 조목조목 반박한다. 첫째로 과학주의자들은 가능한 한 냉정하고 객관적이어야만 한다고 주장하지만 우리들이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세계 또한 매우 신뢰할 만하고, 둘째로 존재하는 모든 것을 측정할 수 있다는 것은 가능하지 않고 특히 인간의 감정을 측정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며, 셋째로 사회과학에서 살아 움직이며 의식을 갖고 있는 인간이란 관찰자를 통제하는 것은 그 결과를 더욱 미심쩍고 불확실하게 만들며, 넷째로 어떤 진술이 일반적이면 일반적일수록 그것을 개인에게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은 적어지며, 다섯째로 정확한 예측을 하기 위해서는 실제적인 상황을 무자비할 정도로 축소시켜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과학주의자들의 방식으로는 연구에 한계가 있음을 주장한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질적 연구방법의 지지자들은 양적인 연구방법의 편향성을 극복하거나 보다 한국적 상황을 더 잘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질적 연구가 행해져야 한다고 한다. 그러나 근래에도 문헌정보학 연구의 질을 한 단계 상승시키기 위해서는 가설을 설정하고 검증하는 객관적 방법의 채택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sup>27)</sup> 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고 문헌정보학분야에서 나온 연구방법론 서적들의 대부분이 과학적 방법을 지지하고 있음은 엄연한 사실이다.

이제까지의 우리나라 문헌정보학 연구방법론과 관련된 논의들을 살펴보면 양적인 연구방법과 질적인 연구방법 중 한 가지로만 연구가 진행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된다. 메이슨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질적 연구의 철학과 이의 수행이 방법론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것으로 간주되어서는 안된다. 또한 질적 연구가 양적 연구에 배치되거나 양립불가능한 것으로 보는 것도 잘못이다. 양적 방법과 질적 방법의 구분은 뚜렷하게 지명한 것이 아니다. 모든 연구자들은 과연 질적, 양적 방법들 또는 이들 모두를 서로 결합시킬 것인가, 그리고 왜 어떻게 결합시킬 것인가를 심각하게 고려하여야 한다.<sup>28)</sup>

즉 주로 질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논문도 그 속에 양적인 요소가 많이 있고 양적 논문으로 분류되는 논문이라도 그 속에 질적인 연구의 특성도 발견되는 것이 사실인 것이다. 결론을 도출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질적 연구 속에도 역시 양적인 내용이 많고 기초연구라고 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또한 “가설이나 이론, 법칙, 일반화 그리고 결론 등과 같은 용어들이 실상은 모두 거의 같은 의미를 갖는다”는 힐웨이의 주장에 비추어보면 질적인 연구방법이라고

25) 김정근, 전게서, p.168.

26) L. S. Barit et al., 교육연구와 현상학적 접근, 홍기형 역(서울: 문음사, 1990), pp.36-57.

27) 이명희, “내용분석법에 의한 문헌정보학 학술지 연구논문 분석,”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 36권, 제 3호(2002. 9), pp.287-310.

28) Jennifer Mason, 질적 연구방법론, 김두섭 역(서울: 나남출판, 1996), pp.23-24.



해서 가설이 없다고 확인하기 곤란하다. 다만 논문을 작성시 앞부분에 미리 제시해 두는지 그렇지 않은지의 차이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귀납법을 사용한다고 하는 질적 연구를 시작할 때에도 연구자들이 어떤 결과를 미리 예상하고 시작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그 예상을 명시하든 그렇지 않든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되지 않는다.

종합하건대 양적 방법이건 질적 방법이건 한가지로 뚜렷하게 구분되기 힘든 경우도 있고 차이가 있다고 하여도 그것은 모두 결론으로 이끌어가는 논증의 차이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연구방법은 하나의 수단이고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다. 따라서 도서관계에 좋은 영향을 어느 정도까지 줄 수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지 수단 자체로 연구의 질을 평가할 수는 없다. 질적 연구방법의 지지자들도 질적 연구방법이 항상 양적 연구방법보다 우월하다고 하는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양적 연구방법이 다루기 힘든 연구분야를 다루기에 유리하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특정 연구 방법만이 연구의 좋은 결과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고 상황에 맞는 연구방법을 적절히 사용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 IV. 비실증적 논문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 문헌정보학 논문평가에 관한 논의는 크게 두 가지 흐름 즉 과학적 연구와 질적 연구의 지지자들이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 기타 방법을 사용하는 연구자들은 자신의 방법이 우월하다거나 최소한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글도 찾기 힘든 것 같다. 과학적 연구가 요구되거나 질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는 주장 속에서 상대적으로 비실증적 연구는 수준이 낮은 것으로 폄하되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심지어 우리나라의 질적 연구 분야의 성격과 과제에 대하여 잘 제시한 연구를 수행한 저자들도 논문의 말미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덧붙이고 있다.

문헌정보학 연구방법론의 다양화라는 관점에서 질적 연구방법론의 의의를 생각해보자는 의도로 이 글을 시작했으나, 글을 끝내는 기분은 그다지 개운치 않다. 지금 더 필요한 것은 아마 세치 혀로 하는 “평론”이 아니라 제대로 된 연구를 하나 더 쌓기 위해 발로 뛰는 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이다.<sup>29)</sup>

그렇다면 실제로 비실증적 방식을 사용하는 논문들이 낮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을까?

필자는 여기서 다른 분야 그중에서도 인간의 마음과 행동을 과학적인 연구방법을 통해 분석하고 이를 실생활에 적용시키는 사회과학의 학문분야인 심리학분야에서 제시하는 논문의 유형에 대해 주목하고자 한다. 미국의 심리학회에서는 미국심리학회의 출판규정(APA Style)<sup>30)</sup>을 발간한 바

29) 설문원, 차미경, 전개서, p.89.

있는데 이 규정에 포함되어 있는 인용 및 참고문헌수록 양식 등은 참고할 수 있는 대표적인 스타일 가이드 중의 하나로 알려져 있다. 그것을 한국심리학회에서 기획하여 한국 상황에 맞게 집필한 책이 “학술논문작성 및 출판지침(2001)”이다. 그 속에서는 학술지에 발표되는 논문들의 유형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sup>31)</sup>

1. 실증적 연구논문: 이는 실험이나 조사와 같은 경험적 연구법을 동원한 독창적인 연구의 보고서를 말한다.
2. 개관논문: 이는 이미 출간된 연구자료에 대한 비평적 평가 및 종합 혹은 메타분석을 행한 논문을 말한다. 개관논문에서 저자는 쟁점과 문제를 정의하고 명확히 하며, 선행 연구들을 요약하여, 현재 연구상황을 알리며 쟁점 해결에 필요한 다음 단계를 제안하여야 한다. 개관논문은 시간 순서가 아니라 내용들의 관련성에 따라 배치된다.
3. 이론 논문: 이는 심리학의 이론을 발전시키기 위해 기존의 연구들을 참조하면서 논의를 전개하는 논문을 가리킨다. 개관 논문과 이론논문은 비슷한 구조를 갖지만 이론 논문은 이론적 논의와 관련될 때만 경험적 정보나 자료를 제시한다. 저자는 이론적 구성을 확장하고 다듬기 위해 이론의 전개 과정을 추적하며 흔히 새로운 이론을 제시하기도 한다. 아니면 기존 이론을 분석하여 오류를 지적하거나 이론들 간의 비교우위를 입증한다. 이론논문의 내용들도 관련성에 따라 배치된다.
4. 기타: 비정기적으로 게재되는 또 다른 형태의 논문들로 간략보고, 논평, 빈론, 계량적 방법의 논의, 사례연구, 독립논문(monograph) 등이 있다.

이 논문의 유형을 우리나라 문헌정보학계의 상황과 대비시켜보면 대체로 실증적 논문과 이론논문이 많이 쓰여지고 있지만 개관논문 분야가 대단히 부족하고 많이 발표되는 이론논문 분야에서도 기존 이론을 분석하여 오류를 지적하거나 이론들 간의 비교우위를 입증하는 부분이 부족한 것으로 느껴진다.

오래전에는 발표되는 논문의 수가 지금에 비하여 훨씬 적었으므로 연구와 도서관업무의 기반이 될 수 있는 실증적 논문들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된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이제는 어느 정도 그런 연구결과물들이 누적되어 논문의 양 자체가 아주 많아졌음은 명백한 사실이다. 따라서 각 실증적 논문들을 통하여 밝혀진 이론들을 비교하고 분석하여 더욱 큰 이론의 틀을 세우는 일이 필요할 것이다. 그런 작업은 개관논문이나 이론논문을 통하지 않고는 한계를 가지게 될 것이다.

개관논문은 실증적 연구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실증적 연구가 아닌 응용연구, 증거가 아닌 견해를 제시한 연구, 다른 연구의 소개나 계몽용 기사 등의 비율이 높은 현실에서 그런 논문

30) APA Style(The Publication Manual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은 현재5 판까지 출판되었음.  
31) 한국심리학회, “학술논문작성 및 출판지침,”(서울: 시그마프레스, 2001), pp.4-5.

들이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의미들을 분명히 밝히고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도 개관논문이 요구된다. 즉 선행 연구들을 요약하여, 현재 연구상황을 알리며 쟁점 해결에 필요한 다음 단계를 제안하고, 이론적 구성을 확장하고 다듬기 위해 이론의 전개과정을 추적하며 흔히 새로운 이론을 제시하기도 하거나, 기존 이론을 분석하여 오류를 지적하거나 이론들 간의 비교우위를 입증하는 작업들이 필요한 것이다. 그러한 작업들을 통하여 오히려 실증적 논문들이 다루어야 할 토픽들이나, 방법 등 새로운 연구방향을 제대로 제시하여 줄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실증적 방식으로 행해지는 연구가 주류를 형성해야 한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본다.

이런 작업을 함에 있어 새겨두어야 할 지침이 있다. 최성진이 지적한 다음의 글이다

“계속적으로 선행연구를 비평하여 잘못된 것이라고 입증된 이론을 폐기하고 여러번 옳은 것이라고 확인된 이론을 기존 지식체계 속에 넣어 확대하는데 있어서 연구자간 개인적 관계의 고려나 감정은 철저히 배제되어야 하며 끝없는 비판정신과 “그것이 사실인가?”라는 물음만이 강조되어야 한다”<sup>32)</sup> 이런 지침은 실증적 연구논문을 쓸 때보다 개관적 연구논문이나 이론연구논문을 작성할 때 더욱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실증적 연구논문을 할 때보다 개관적 연구나 이론연구를 할 때에 남의 논문들에 대한 분석이 논문의 전개에 있어 핵심적인 요소가 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하여 남의 글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다른 연구자들이 연구한 내용 중 의미 있는 내용만 객관적으로 평가한다고 하여도 장기적으로 문헌정보학계에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고 그 작업만으로도 비평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전에 이와 유사한 작업이 전혀 없었다고 보기는 힘들다. 국회도서관보에 1987년도, 1988년도, 1996년도에 “서지학계의 회고와 전망”이 게재 된 바 있다. 이 글들 속에는 해당년도에 발표된 논문들을 일부나마 소개하고 향후 전망 등이 제시되었다. 부정적으로 평가한 부분은 찾기가 힘들지만 일부에서 향후에 필요한 연구 분야를 제시한 점 등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문헌정보학 분야의 논문량이 증가하면 할수록 그와 같은 작업이 더욱 필요하지만 오히려 중단된 점이 아쉽다.

## V. 맺는 말

이 글에서는 우리나라 문헌정보학 논문에 대한 평가내용을 제시하고 이제까지의 논점들 특히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 비실증적 연구 등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선구자적 역할을 해 온 학자들의 많은 지적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 우리나라 문헌정보학 논문들이 확실하게 개선되었다는 평가를 받지 못하는 중요한 원인은 주로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개선 노력을 촉구하는데서 그쳤던 점이 아닌가 생각된다. 물론 현재 논문심사제도를 통하여 일정 기준에 통과한 논문들만이 학회지에 게재되

32) 최성진, 전계서, p.106.

지만 그 기준에 대하여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다.

이제 개관적 연구분야의 활성화를 통하여 현재의 논문생산시스템을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새로운 계기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향후 이 분야의 활성화를 위하여 학회차원이나 학술진흥재단 차원에서 노력할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Annual Review of Information Science and Technology와 유사한 학술지를 연간으로 발행할 수도 있고 기존학회지에 개관논문들을 게재하도록 장려할 수 있을 것이다. 또는 국회도서관보에 게재되었던 “서지학계의 회고와 전망” 등을 더욱 보완하고 발전시켜 명실상부한 개관논문으로 발전시켜나갈 수도 있을 것이다. 다만 이전과 같이 큰 범주의 내용을 한꺼번에 다루기보다는 세부주제별로 논문의 독창성이 있는 부분들을 소개하고 종합하여 현재 연구상황과 앞으로의 방향에 대하여 잘 제시하는 일이 필요할 것이다. 각 분야의 권위자들이 한국의 도서관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연구내용을 정리하고 향후의 연구방향을 제시하면 그 파급효과는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하여 학회와 구성원들의 적극적 관심이 요망된다.

〈참고문헌은 각주로 대신함〉